

# ABARES 2016 농업전망: 축산부문 \*

서 강 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전망

### 1.1. 단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가격 감소

2015~16년 호주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생산량은 도체중량(car cass weight) 기준 240만 톤으로, 2014~15년 270만 톤 대비 1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쇠고기 생산 예상 감소치는 도축무게 증가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도축두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6~17년 쇠고기 생산량은 230만 톤으로 더욱 감소(▽7%)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21년 평균도축무게(average slaughter weight)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육장 출하물량(feedlot turn-off)과 적은 암소물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도축두수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쇠고기 생산량도 증가할 것이며, 2020~21년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생산량은 2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softvalue@krei.re.kr). 본고는 호주 농업·수산업·임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인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의 2016년 농업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됨.

## 1.2. 공급으로 인한 수출 제한

2015~16년 호주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출량은 자국 내 쇠고기생산량 감소로 선적중량(shipped weight)기준 120만 톤으로 12% 감소할 전망이다. 2016~17년에는 110만 톤까지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2014~15년 수출량 135만 톤에 비해 20% 적다.

전망 기간의 후반기에 쇠고기 수출량은 소 사육두수 및 도축물량 증가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호주산 소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출량은 2020~21년 약 1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6년 호주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출액은 전년대비 4% 증가하여 92억 미국달러(약 10조 7,778억 원)<sup>1)</sup>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6~17년에는 수출액 증가를 상쇄시키는 수출물량 감소로 인하여 88억 달러(10조 3,092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1년까지 호주산 쇠고기 수출액은 쇠고기 수출물량 증가를 상쇄시키는 품목별(unic) 수출가격 감소로 인하여, 85억 달러(약 9조 9,578억 원)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3. 미국 쇠고기 수입 수요 감소

2015~16년 호주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의 대(對) 미국 수출량은 미국 내 호주산 수출가격을 지지하는 호주산 가공용 쇠고기(manufacturing beef)에 대한 높은 수요와 함께 35만 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2014~15년 수입된 물량 47만 1,000톤에 비해 26% 낮은 수준이다.

호주산 제조용 쇠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몇 년간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 내 생산량으로 인한 것이다. 2011~12년 이래로 미국산 소 도축물량은 무리(군집)규모 확대를 위한 암소물량 보유로 인해 전년대비 평균 8% 수준으로 감소해왔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물량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용 쇠고기의 주요 원천이다. 따라서 공급 감소는 수입산 가공용 쇠고기 수요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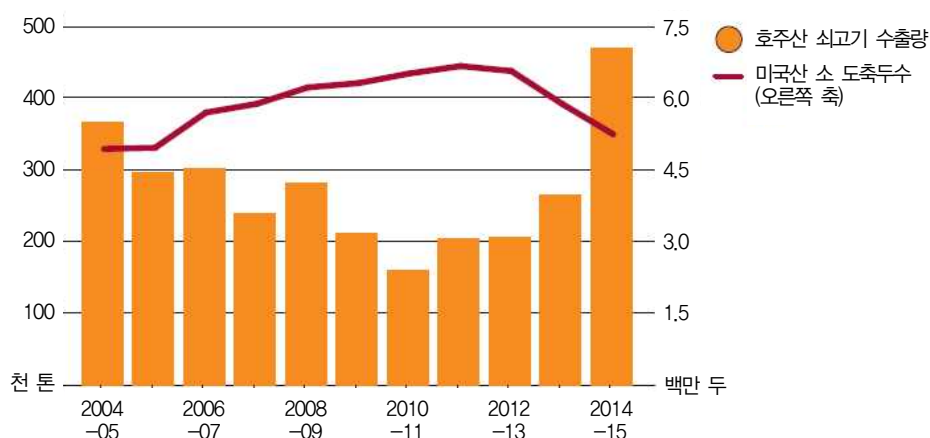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소 무리 재구축(herd rebuilding)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단기적으로 도축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미국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쇠고기의 수출경쟁력은 제한되고 수입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도 진행 중인 무리 재구축은

1) 네이버 환율조회 2016년 5월 15일 기준.

로 인한 호주산 쇠고기 공급 감소 전망은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미국으로의 호주산 쇠고기 수출량은 2016~17년 32만 5,000톤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산 가공용 쇠고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 수요 감소에 대한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2020~21년까지 미국으로의 호주산 쇠고기 선적 물량은 28만 톤(2014~15년 선적 물량의 약 60%)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미국산 소 도축두수 및 호주산 쇠고기 대미국 수출량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 1.4. 대 일본 써생장 수출 유지

2015~16년 호주산 쇠고기의 대 일본 수출량은 28만 톤으로 전년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높은 수입가격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인한 것이다. 2015~16년 상반기에, 일본에서의 호주산 냉장쇠고기 가격은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6% 높았다. 한편 일본으로의 호주산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였다.

일본에서 호주산 쇠고기 가격은 2016~17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입산 쇠고기 수요 감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체 쇠고기 수입량 가운데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상정되는 호주달러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호주산 쇠고기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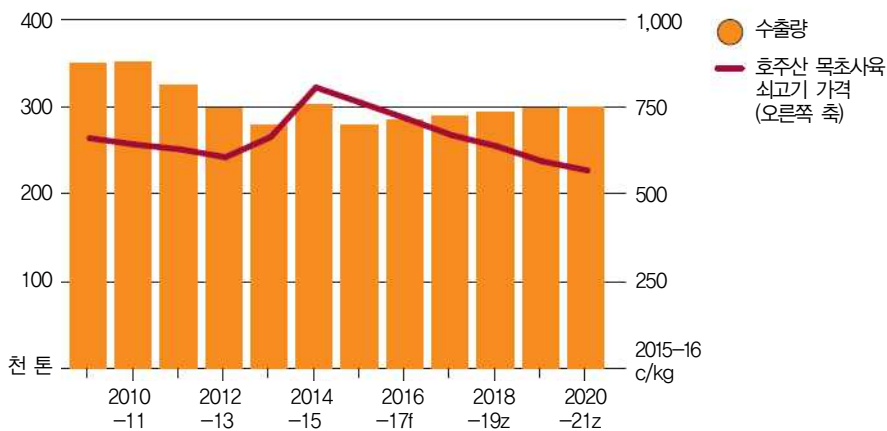
일·호주 경제동반자협정(Japan-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AEPA)을 통해 체결된 호주산 관세인하 사항도 쇠고기 수출에 이득이 될 수 있다. 2016년 4월 1일부

터 호주산 냉장육 및 냉동육 관세는 각각 30.5%, 27.5%가 적용되며, 이는 일본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 3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6~17년 호주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의 대 일본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한 28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일본은 인구고령화 및 소득 저성장을 등으로 인해 쇠고기 수요 증가율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쇠고기 시장의 전체 수입량 중 호주산 점유율은 일-호주 경제동반자협정(JAPEA)을 통한 관세인하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보이는 호주 달러로 인해 안정세를 더욱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호주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30%이상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2015~16년 후반기에는 대략적으로 74센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21년까지 호주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의 대 일본 수출량은 해마다 약 1%씩 증가하여 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전망은 일본에 수입되는 호주산 쇠고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이 협정이 언제 발효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TPP협정 발효는 일본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입 관세율을 27.5%까지 낮추고, 모든 협정국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JAPEA 협정관세가 TPP관세보다 낮다면, 모든 협정국은 JAPEA 관세율 수준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대일본 호주산 쇠고기 수출 및 목초사육 냉장쇠고기 지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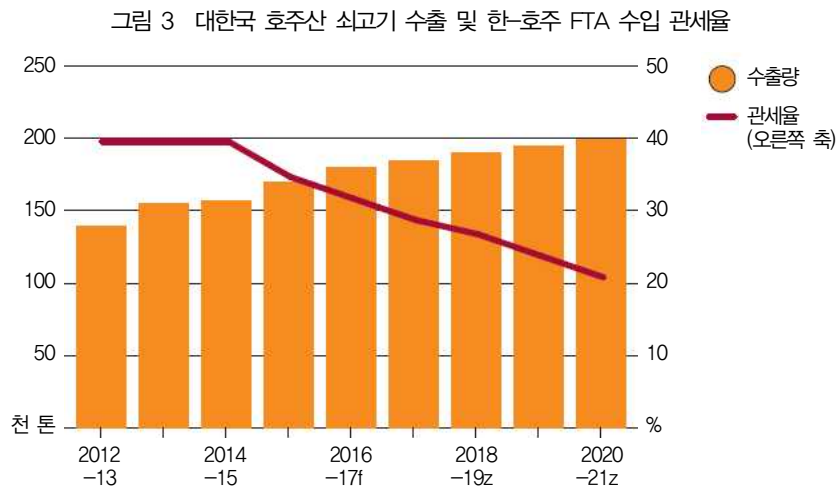


주: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 1.5. 한국의 높은 수요 유지

2015~16년 한국으로의 호주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11%까지 증가하여 17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의 쇠고기 소비의 빠른 증가율과 제한된 국내생산량은 수입수요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것은 호주산 쇠고기 수출의 탄탄한 원동력으로, 2016~17년 호주산 쇠고기 수출량은 3% 증가한 1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수출량은 연간 3%수준으로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수요는 주요 대상국인 호주 및 미국과의 FTA협정을 통한 관세율 감축에 의하여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조기 FTA협정 체결은 관세율에 있어 호주산에 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5.3% 유리하도록 되었으며 2026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미국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달러로 인해 호주산 쇠고기 수출은 이러한 열세를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 1.6. 대중국 수출 경쟁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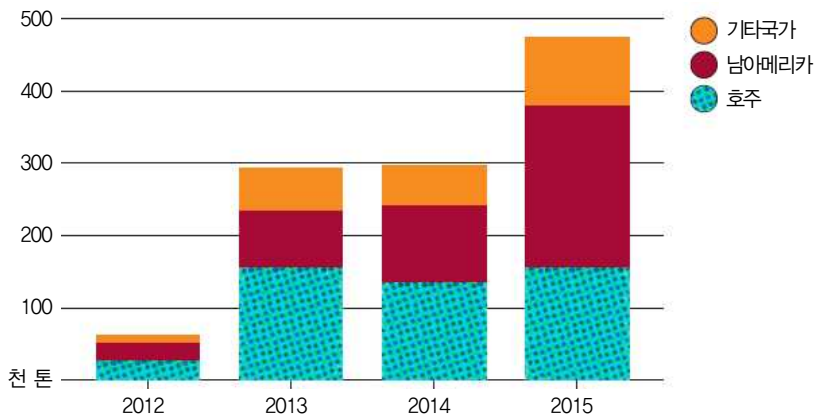
2015~16년 호주산 쇠고기의 대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2년간 높은 수출성장률에 이어, 호주산 쇠고기의 대 중국 수출

량은 중국에서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 호르몬 잔류물질 검사를 시행한 이후 2014~15년에 감소하였다. 이에 호주 생산자들은 중국의 추가적 검사요건을 충족시키고자 그러한 협약을 이행해왔으며, 수출량은 다시 증가하였다. 2015년 하반기 수출량은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높게 파악되었다.

중국의 수입쇠고기 수요는 소비 증가율이 국내생산 증가를 초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17년 호주산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7% 증가한 1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적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출량은 연간 3% 수준으로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1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는 2015년 12월 1일 발효된 중국-호주 FTA 협정에 의해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호주 FTA 체결은 쇠고기 관세 감축범위가 이전의 12%에서 25%로 조정될 정도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또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무관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중국의 쇠고기 수입국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추후 호주산 쇠고기의 대 중국 수출량은 특히 남미(South America)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경쟁 고조로 인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호주산 비율은 2014년 45%에서 2015년 33%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남미산 수입 비중은 4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루과이산 물량이 38% 증가한 12만 3,000톤에, 아르헨티나산 물량이 151% 증가한 4만 3,000톤에 달하였기 때문이다<그림 4 참조>.

남미의 최대 쇠고기 생산국인 브라질의 경우, 광우병 관련 수입금지가 해제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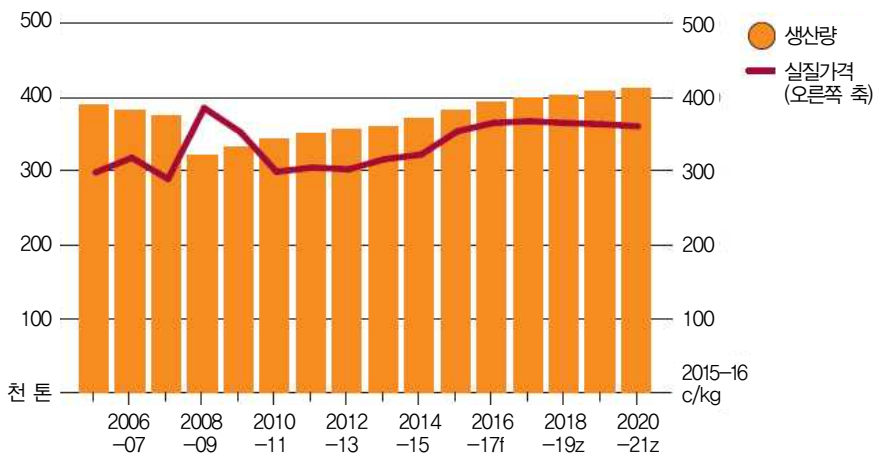
라 2015년 7월부터 다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데, 2015년 4사분기의 경우 브라질산 수입량은 4만 1,418톤으로 호주산(4만 1,828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5년 12월에는 브라질산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 2. 돼지고기 전망

2015~16년 호주 도축장의 돼지고기 가격(over-the-hooks pig prices)은 도축무게(dressed weight) 기준, 10% 증가한 356센트/kg에 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2016~17년에는 추가적으로 3% 증가한 367센트/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적색육(red meat) 소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되는 신선돼지고기(fresh pork) 수요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

중기적으로, 도축장 내(over-the-hooks) 돼지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2020~21년까지 kg당 363센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다른 대체육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 및 도축장 기준(over-the-hooks) 가격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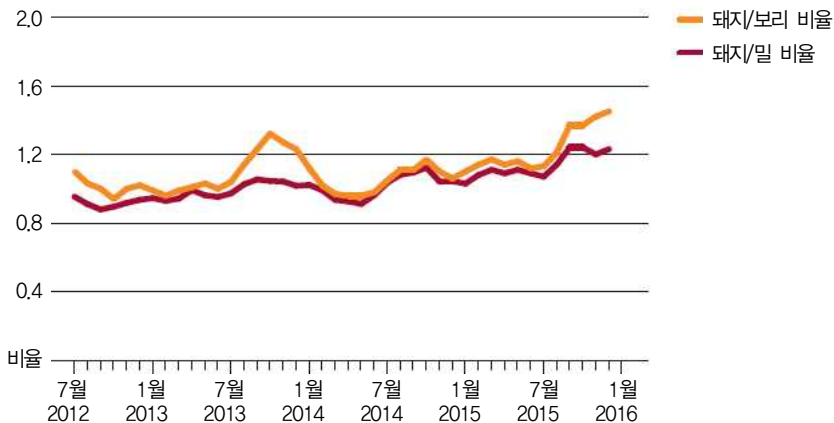


## 2.1. 중기(medium term) 생산 증가

2015~16년 호주산 돼지고기 생산은 3% 증가하여 38만 2,000톤에 이를 것이며, 2016~17년에는 추가적으로 3% 증가하여 39만 3,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지난 5년간 무리 확대(herd expansion)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도출량 또한 동년 기준 4% 증가하였다. 2014~15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간, 약 10%의 출생률 증가와 새끼돼지 생존율은 암돼지 한 마리당 도축돼지 두수를 11%까지 늘렸다.

국내 생산량의 약 40%가 신선 돼지고기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가공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가공부문의 수입으로 인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전망기간동안 국내 사료곡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자 이윤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료곡물은 일반적으로 생산 비용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2014~15년 돼지/밀, 돼지/보리 평균 가격 비율은 모두 약 13% 상승함으로 마진(margin) 여건이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호주의 돼지고기 대 사료 가격 비율



주: 2016년 1월 말 기준.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료가격은 또한 중기적으로 생산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약 41만 2,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이르기까지, 국내 생산량의 약 40%는 지속적으로 국내 신선육시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물보안(biosecurity) (고려)사항은 수입돼지고기가 국내 신선육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해왔으며, 이는 국제



경쟁으로부터 제외되도록 하였다. 호주는 판매 전 일정수준 조리(cooked)되어야 한다는 특정 수입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에 한해 돼지살코기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 돼지고기 수입은 가공부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 2.2. 호주산 돼지고기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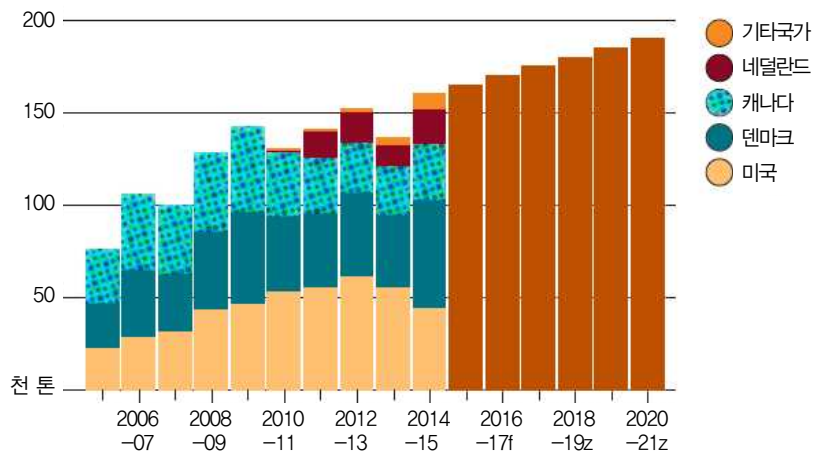
호주산 돼지고기 소비는 지난 5년간 평균 3%씩 증가하여 2015~16년 1인당 소비량 27.7kg에 이르는 등, 국내 생산보다 더 빨리 증가해왔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2%의 생산증가율과 비교된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수입량 비율은 2005~6년 31%에서 2014~15년 49%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육이 전체 돼지고기 소비의 약 2/3를 차지하며, 신선육이 나머지 1/3을 차지한다. 중기적으로 호주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쇠고기와 양고기 소매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21년 기준 1인당 28.3kg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3. 지속적인 수입 증가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5~06년 7만 5,000톤에서 2014~15년 16만 톤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선적물량 기준). 2015~16년에는 수입량

그림 7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



주: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은 지난해 16% 증가에 이어, 3% 더 증가함으로 16만 5,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5~16년 첫 5개월 수입량은 2014~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낮았는데, 이는 2014년 상반기 미국에서의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oea Virus, PEDV) 발발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PEDV발발 이후 미국 돼지생산량이 다시 회복됨에 따라 2015~16년 하반기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로부터의 수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러시아에서 EU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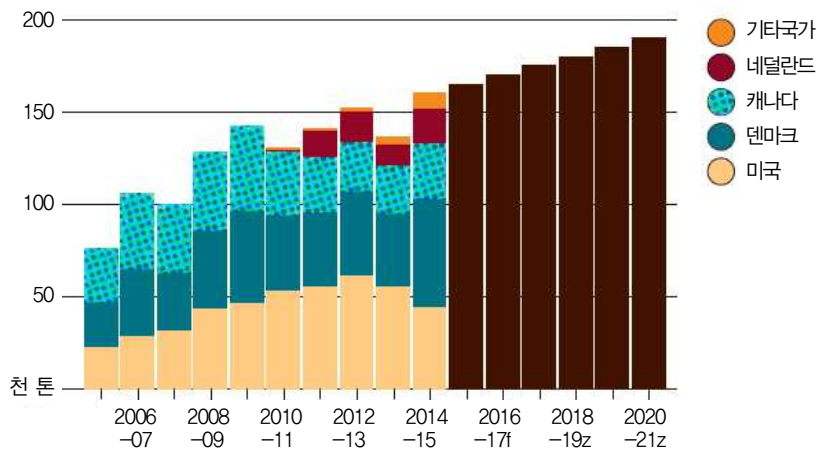
중기적으로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1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되는 소비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수입량에 의해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 2.4. 2020~21년까지 미미한 수출 증가

호주산 돼지고기 수출량은 2015~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하여 약 2만 8,0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선적물량 기준). 2015~16년 수출액은 수출에, 유리한 호주달러 약세에 힘입어 19% 증가한 1억 2,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는 호주의 가장 큰 돼지고기 수출시장으로, 2014~15년 기준 세 국가 통틀어 전체 수출물량의 76%를 차지하였다. 싱가포르 달러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호주달러는 2015~16년 첫 5개월에 전년대비 4% 증가

그림 8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



주: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한 수출액을 달성하였다.

뉴질랜드는 2014년 2월부터 미국과 EU 몇몇 국가로부터 신선돼지고기(fresh pork)를 수입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로부터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4~15년 뉴질랜드로의 호주산 수출은 13% 감소하여 4,100톤에 머물렀다. 중기적으로 볼 때, 뉴질랜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호주산 냉장육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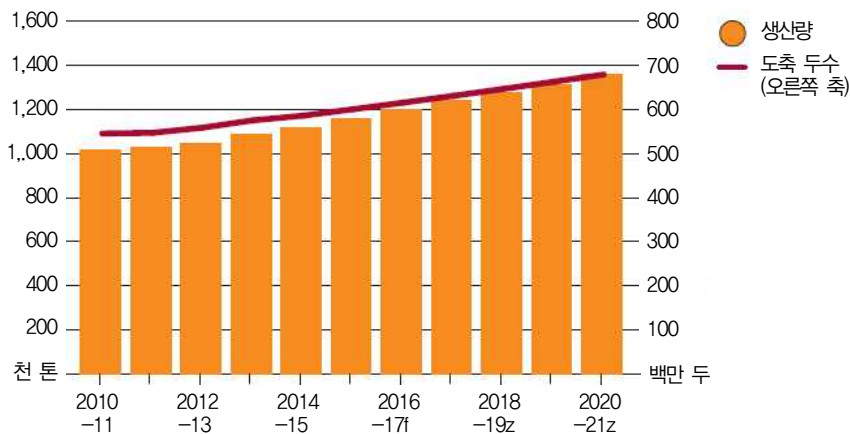
호주산 돼지고기 수출은 2020~21년 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출물량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기간에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 3. 닭고기 전망

호주산 닭고기 산업은 소수의 대기업, 수직통합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이들은 수십 년간 꾸준히 닭고기 생산량을 늘려왔다. 생산성 증대는 도축두수 및 도축무게 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기업들의 규모화는 가공시설 투자 및 사육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케 하였다.

2010~15년까지 5년간 도축된 가금류 마릿수는 연평균 약 5% 증가하였으며, 도축무게는 같은 기간 연평균 1%씩 증가하여 1.91kg에 달하였다. 이러한 성장추세는 중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축무게(car cass weight) 기준으로 호주산 닭고기 생산

그림 9 호주의 닭 도축두수 및 닭고기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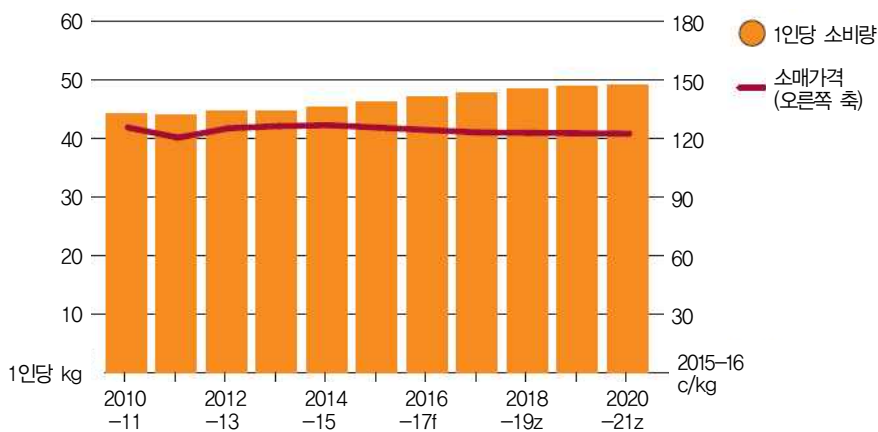
주: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량은 2015~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하여 116만 톤에 달하고, 2016~17년에는 4% 더 증가하여 1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적으로 닭고기 생산량은 연간 3% 수준으로 증가하여 2020~21년에는 136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1년까지 전체 육류생산에 있어 닭고기 비중은 도축무게 기준으로 약 30% 수준(2014~15년 23.3%)이 될 것이며, 적색육(read meat)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3.1. 국내 소비의 지속적 증가

닭고기 소비의 증가는 주로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낮게 유지되는 소매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증가 또한 국내수요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총 닭고기 소비량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1인당 소비량은 같은 기간 대비 연평균 약 2.4% 증가하였다. 주요 대체육류인 쇠고기와 양고기의 높은 소매가격이 예상됨에 따라, 2015~16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전년대비 2% 증가하여 46.2kg에 달하고, 2016~17년에는 추가적으로 2% 증가하여 47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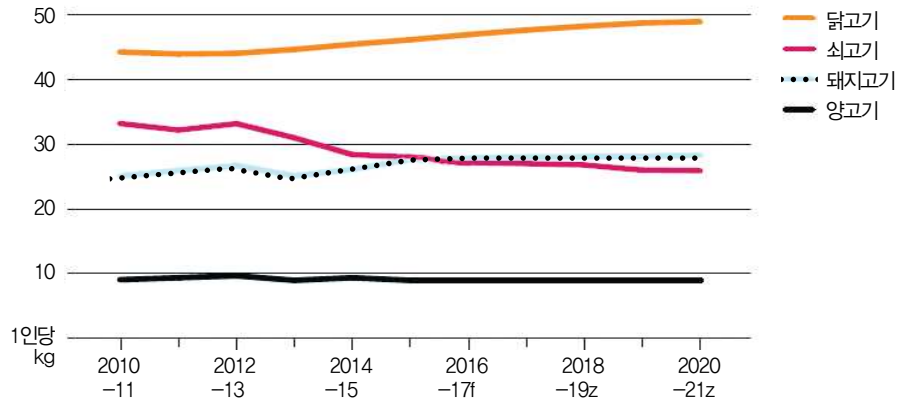
그림 10 호주의 닭고기 소매가격 및 1인당 소비량



주: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닭고기 소비는 중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2020~21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14~15년에 비해 8% 높은 49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쇠고기 25.7kg(2014~15년 대비 12% 감소), 양고기 9.2kg(2014~15년 대비 2% 감소), 그리고 돼지고기 28.3kg(2014~15년 대비 7% 증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림 11 호주의 1인당 육류 소비 추세



주: f-ABARES 전망치, z-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6).

### 3.2. 닭고기 교역량 증가

호주의 닭고기 교역은 닭고기 산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적색육 산업과 달리, 닭고기 산업은 거의 대부분 국내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5% 이하에 불과하다.

닭고기 전체 수출량은 2014~15년 기준 3만 4,200톤으로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파푸아뉴기니와 필리핀이다. 호주는 미국의 몇 개 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일본을 대상으로 2014~15년 650톤의 닭고기를 수출하였다.

2015~16년 호주의 닭고기 수출물량은 미국, 중국, EU에서 발생한 각기 다른 유형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1% 증가한 3만 4,5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낮은 호주달러는 호주의 수출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적으로도 호주 국내 닭고기 소비량이 전체 생산량의 약 9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작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산 닭고기 수출량은 연평균 약 3% 증가하여 2020~2021년에는 4만 1,000톤(선적 중량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ABARES). 2016.  
*Agricultural commodities*. ABARES.